

第 4 回

韓·日産業保健學術集談會 參加報告



가톨릭醫大教授
李 昇 漢



今年度の 第 4 回韓日産業保健學術集談會는 4 月 11 일부터 14 일까지 2 日間の 學術會議와 2 次의 視察旅行日程을 가지고 日本에서 開催되었다.

이 學術集談會의 目的은 元來가 딱딱한 學術 討議를 벌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나라의 産業保健專門家와 實務者의 親交를 圖謀하고 每年 交代로 相對國을 訪問往來하면서 産業保健 事業이 자라고 있는 風土와 環境을 觀察理解하는 同時에 서로의 貴重한 經驗을 털어 놓아 두 나라의 産業發展과 勤勞者福祉向上에 寄與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間 第 1 回集談會가 3 年前에 서울에서 열렸었고, 第 2 回와 第 3 回集談會는 各各 馬山과 京都에서 열렸었으며, 그래서 올해의 제 4 회는 日本東京에서 열리는 次例가 된 것이다. 이렇게 每年 적지 않은 사람이 두나라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서로 個人的인 親分도 두터워졌고 學術情報의 交換과 技術協調도 機關間에 漸次 擴大되어가고 있으니 當初의 目的은 어느 程度 實現段階에 들어섰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번 學術集談會의 全過程을 통하여서도 새삼 느낀 일이지만 이 모임을 위해서 兩國의 關係者들이 쏟은 정성과 熱意는 大端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參加者 여러분의 協調가 컸던 것은 물론이지만, 日本側準備委員의 誠意와 勞苦는 이루 말할 수 없을 程度이었으며, 그 一端은 今般의 學術集談會가 4 日間に 걸친 第 60 回 日本産業 衛生學會學術大會끝에 週末인 土曜日(11 日)과 日曜日(12 日)을 끼어 開催되었는데도 不拘하고 日本側 60 餘名과 韓國側 30 餘名の 參加로 成功裡에 閉幕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 參觀記를 쓰기 始作함에 있어 齊藤 日本側 代表委員과 乾幹事, 全國衛生團體連合會의 西嶋專務, 珪肺勞災病院의 千代谷院長과 神奈川縣豫防醫學會의 戶田所長, 또 宿所豫約등 자질구래한 支援으로부터 煩雜한 視察旅行의 同伴까지 手苦를 아끼지 않은 京都工場保健會 中田部長과 森氏, 神奈川縣豫防醫學會 石川室長, 全衛連 橫峰課長등 여러분에게 感謝의 말을 드리고져 하는 바이다.

이번 學術集談會의 學術會議는 第1部 職業病의 新知見, 第2部 特別講演, 第3部 Monitoring의 新知見, 第4部 集團保健管理의 順序로 東京의 後樂園會館會議室에서 進行되었다.

後樂園은 東京中心地에서 멀지 않아 大衆交通手段의 利用이 便利하고 大學과 球場과 遊園地를 가까이 둔 곳이다. 數日前的 비로 濕기는 이미 졌으나 길가에 빈틈없이 심어진 꽃과 灌木이 낮에는 아름답고 저녁에는 男女大學生이 짝지어 紳士집을 찾아 젊음을 불태우는 곳이기도 하다.

그 一角에 세워진 後樂園會館은 勞動省産災保險基金이 運營하는 福祉休養施設의 하나로, 遊興 娯樂施設이 없는것만 제외하면 웬만한 觀光호텔 만큼이나 훌륭하고 깨끗하며 조용한 雰圍氣가 學術會議를 開催하는 데는 安성마춤이었다. 더구나 宿泊料금이 매우 低廉하여 円高時代의 日本 物價를 두려워 하던 韓國側參加者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었으며 會議期間중 會員들이 이곳에 投宿하게 되었다.

學術會議의 第1部에서는 日本側 3題, 韓國側 3題의 演題發表가 있었다. 日本側演題가 主로 職業病診斷에 관한 知見을 다룬데 대해서 韓國側演題는 研究調査의 結果發表에 置重한 느낌을 주었다.

第2部에서는 日本 Bioassay 研究센터의 坂部所長이 新規化學物質의 有害性豫知에 關한 特別講演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曹圭常會長이 後進國에 대한 技術移轉時에 考慮하여야 할 産業安全保健과 勞動條件에 關하여 ILO 專門委員會實

行規則과 우리나라의 産業安全保健法上의 問題點을 論하였다.

第3部에서는 日本側 2題, 韓國側 4題의 口演이 있었다. 日本演者들은 測定法自體와 精度管理問題를 다룬데 대해서, 韓國演者들은 主로 産業現場에서의 測定成績을 다루어 좋은 對照를 이루었다.

第4部에서는 韓日 各2題의 演題發表가 있었다. 主題가 集團保健管理인만큼 두나라의 共同關心事가 될만한 內容이 많이 다루어졌다.

學術會議가 끝나자 바로 韓國側參加者는 視察旅行을 떠나는 奔走한 日程을 밟게 되었다. 第1目的地는 東京北方 電車로 約2時間 距離에 있는 鬼怒川溫泉이었다. 이곳은 日本에서 가장 오래된 珪肺勞災病院이 있는 곳이고 그 마을 自體가 溫泉休養地일뿐 아니라 近處에는 有名한 東照宮과 日光觀光地를 끼고 있다.

後樂園會館을 떠날 때도 날씨가 조금 쌀쌀하더니 鬼怒川에서는 눈발이 비친다는 이야기였다. 택시로 電車의 出發驛인 淺草에 닿으니 出發時刻까지 한時間가량 餘裕가 생겨, 驛舍와 같은 建物내에 있는 松屋百貨店에서 鞋타와 記念品을 고르면서 부산을 떨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百貨店도 이제는 規模와 內容에 있어 웬만한 水準에 達하였으나 그 多樣한 物件과 親切한 店員이 눈길을 끌었다.

休養地인 鬼怒川까지의 鐵路沿邊에서는 尖端都市인 東京周邊과는 判異한 風景이 展開되었다. 널찍한 들에 집들이 散在하고 널판으로 벽을 친 오랜 學校建物이 눈에 띄는가 하면 더러는 窪地미도 싸여 있었고 양상한 나무가지가 더욱 空間을 넓게 보이게 하였다.

鬼怒川驛前과 거리도 20年前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약간은 철이 일러서 閑寂하기만한 旅館에 짐을 풀고 溫泉에 몸눕히고 저녁상을 대하니 모두들 酒興이 이는데, 어느새 옛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鬼怒川의 珪肺勞災病院은 1949年 創立이라 얼마前에 늘려 다시 지어서 以前の 古色蒼然한

모습이 250 病床의 現代式 6 層建物로 탈바꿈하고 있었고 元來 絶景속에 터를 잡은지라 마침 봄을 맞이하여 病院앞뒤가 몹시 아름다웠으나 玄關앞의 滿開한 古木 벚나무가 印象깊었다.

그러나 病床의 切半을 一般患者가 占하고 近方에 産業保健센타를 運營하고 있다고 들으니 10 年前에 본 經營의 어려움은 아직도 繼續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리핑을 듣고 바빠 院內를 一巡하였는데 放射線診斷의 設備規模가 大端하였다. 病院과 醫療機器會社가 共同開發하였다는 Computed radio graphy 裝置는 複雜한 珪肺患者의 肺속을 뚜렷하게 立體的으로 보여 주었다. 志田放射線部長의 이야기로는 世界最新裝備의 이야기를 오는 가을 Sydney 에서 열리는 國際産業保健會議에서 發表할 것이라고 한다.



東京으로 돌아갈 電車時間을 기다리며 東照宮을 觀覽하였는데 그 華麗함은 日本에서도 一流

에 屬하였고 學生들의 修學旅行이 줄을 이었다. 反面에 드라이브에 나섰던 日光中禪寺湖는 觀光씨즌이 아니라 쓸쓸하기도 하였지만 有名하던 華嚴폭포도 破損되어 옛 모습을 잃은 느낌이었다.

어둠이 깔린 속에 다시 東京淺草驛에 돌아왔다. 始終一貫 우리 一行을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하여준 中田, 吉川, 橫峰, 森諸氏의 勞苦를 慰勞한다고 會長, 南支部長과 함께 駒形의 미꾸라지집에 들렀다. 350 年이 됐다는 이 大衆飲食집에서는 좀 징그럽기도 하고 감칠맛 있는 미꾸라지料理가 줄줄이 나오는데 創業以來 한곳에서 오직 이 한가지의 料理만을 팔아왔다니 日本人의 氣質의 一端이 엿보이는 듯 하였다.

다음날 國鐵便에 찾은 橫濱의 神奈川縣豫防醫學會는 巨大한 빌딩의 몇層을 차지한 健康管理 專門機關이었고 찾아드는 患者를 不便없이 맞이하도록 잘 考案된 施設配置가 눈길을 끌었다.

이번의 學術集談會는 두곳에 대한 視察旅行이 들어 있기도 하였지만 全會期중 낮과 밤에 걸쳐 융성한 接待를 받아 疲困한 가운데에도 時間가는 줄을 모르는 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韓日産業保健學術集談會는 韓日兩國이 每年 交代開催하는 原則이 運營委員會와 總會에서 確認되었으나 3 年마다 열리는 아세아 産業保健會議의 해에는 順延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이 學術集談會의 趣旨를 永續시키기 위해서 보다 젊은 年會層의 參與를 促進하는 方案이 마련될 展望이다.

흙과 나무와 물로 이루어진 자연에는 거짓이 없다.
뿌리고 가꾼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 질서앞에서는 억지나 속임수같은게 용납될 수 없고 또한 그 세계 안에서는 아무것도 쇄신(刷新) 할게 없다.
본래 갖추어진 그대로이니까.
그저 진실로 대하면 진실의 응답이 있을 뿐.

法頂의 「서 있는 사람들」中에서